

Payment Report

VIRTUAL ASSETS

OPEN BANKING SERVICE

금융결제원은 국내 소액결제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관련 서비스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 등이 있다. 2021년을 마무리하며, 이번 호에서는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들의 최근 5년간 실적과 지급결제시장 관련 국내외 트렌드를 분석해 보는 코너를 마련하였다. Payment Report 코너를 통해 향후 발행되는 호부터는 위와 같은 내용을 분기 단위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글. 이호섭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연구소
전문연구역, US CPA(the State of Washington)

통계로 보는
지급결제시장
인사이트 No.1

1. 글로벌 이슈 브리핑

가. 국내의 오픈뱅킹 서비스

- 국내 오픈뱅킹 서비스 제공 건수 및 금액의 획기적 증가
- 오픈뱅킹 환경 확대는 다른 주요국에서도 관찰되는 현상

국내에서 오픈뱅킹 서비스가 시행된 시점은 2019년

12월¹이다. 오픈뱅킹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금융서비스 이용 고객은 여러 금융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금융회사 또는 핀테크 기업의

애플리케이션만으로도 본인과 관련된 다양한 금융 정보²를 조회하고, 필요한 경우 자금을 이체할 수 있게 되었다. 관련 정책 당국은 오픈뱅킹 환경의 안정적 운영 및 참여 주체 간 데이터 상호 개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³하고 있다.

보험 서비스로의 오픈뱅킹 환경 확대

정책 당국은 2021년 11월, 보험사와의 간담회에서 보험사의 오픈뱅킹 환경 참가 및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한편, 보험업계는 정책 당국에게 향후 빅테크 기업과 보험사 간 규제 차등 적용 해소, 보험사의 플랫폼 사업, 헬스케어 및 요양 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 분야 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 당국은 보험사의 선불전자지급 업무 등 신사업 관련 경영 및 부수 업무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보험사의 자회사 설립 허용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헬스케어 스타트업에 대한 원활한 투자가 가능토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 자료 : 매일경제(2021. 11. 03.), 「금융위원장 "보험사 오픈뱅킹 참여허용, 1사면허제 완화"」



이와 같은 정책 당국의 제도적 지원과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의 오픈뱅킹 환경에 대한 적극적 참여로 국내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 건수는 2020년 약 25.4억 건에서 2021년 약 64.3억 건으로 1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용 금액은 2020년 약 113.5조 원에서 2021년 약 314.3조 원으로 17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오픈뱅킹 서비스 관련 절대 금액 및 건수는 물론 각각의 성장률 모두 세계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오픈뱅킹관련 논의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영국과 유럽 연합에서는 지급 서비스에 대한 지침이 개정⁴(PSD2, Payment Services Directive 2)됨에 따라 금융 시장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핀테크 기업 등도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핀테크 기업 등에게 금융업 면허를 부여함으로써 지급결제시장에 대한 직접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관련 당국인 CMA(the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를 중심으로 오픈뱅킹관련 사업을 추진했던 영국의 경우 오픈뱅킹 환경을 통한 서비스 처리 건수가 2019년 9월 일평균 약 4.6백만 건에서 2021년 9월 일평균 약 25.9백만 건으로 여섯 배 가까이 증가(연평균 성장률 = 약 137%) 하였다.⁵ 이처럼 오픈뱅킹 환경의 확대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국가에서도 관찰되는 현상이다.

1 2019년 10월 30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시범 서비스 시행

2 금융회사 계좌 보유 내역, 카드 보유 내역, 카드 이용 대금 청구 관련 내역, 핀테크 기업 관련 선불 충전금 내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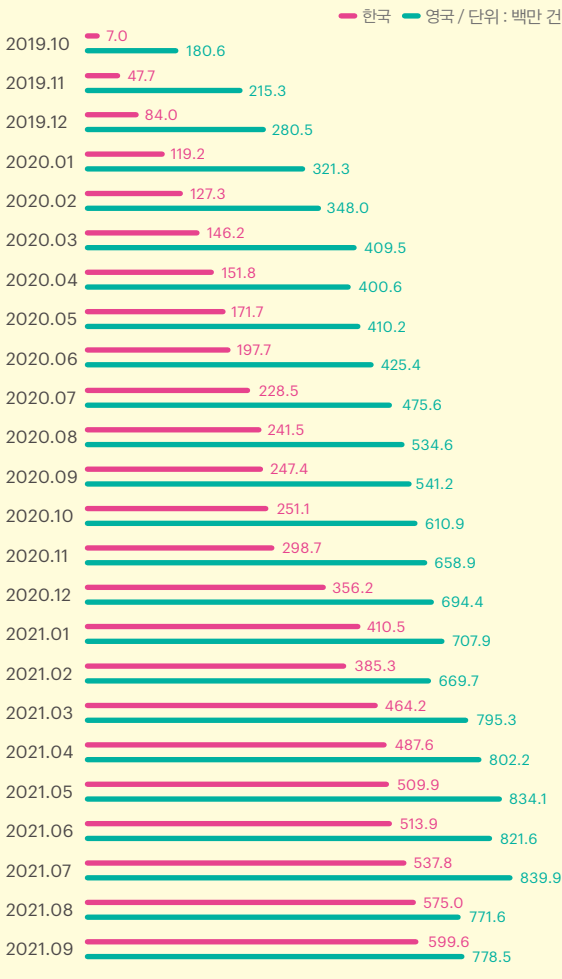
3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2020),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개정 시점은 2015년이나 PSD2가 실질적 효력을 갖게 된(went into full effect) 것은 2019년 9월 이후이다. 특히 강화된 고객 인증 제도(Strong Customer Authentication)에 대한 사항은 그 적용 시점이 2020년 말까지로 연기되었었다.

5 자세한 내용은 openbanking.org.uk에서 확인할(Successful API calls) 수 있다.

- 오픈뱅킹 거래 건수, 한국이 영국 수준에 근접

〈한국과 영국의 오픈뱅킹 환경을 통한 서비스 처리 건수 변화〉



※ 자료 : 금융결제원 사업계층별 분류체계 통계, openbanking.org.uk

한국은 영국과 약 2년의 시차를 두고 오픈뱅킹 서비스를 개시하였음에도 그 이용 건수는 영국의 75% 이상(2021년 9월 기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의 경제 규모가 영국의 약 60%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이 영국을 절대적인 규모에서도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



나. 국내 제도 개선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과 핀테크 육성 지원

(국내외 현황) 영국, 유럽 연합, 싱가포르와 같은 주요 국가는 지급결제, 인증, 금융 플랫폼 분야 등에 대한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자국 내 핀테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약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한국은 2006년에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정한 이후 이에 대한 가시적 개편을 추진하지는 못하였다. 그 결과 소규모 핀테크 기업의 지급결제시장 진입이 제한되거나, 융·복합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주요 국가에 비해 불필요한 제약이 따르게 되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노력⁶ 및 핀테크 육성 지원법(가칭) 제정과 관련된 논의⁷가 진행되고 있다.

(제도 개선에 따른 효과) 이러한 논의가 실현될 경우 예상되는 기대 효과는 1)핀테크 기업 등의 소액 지급결제 시스템 관련 서비스⁸ 직·간접 참가 근거 마련, 2)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관련 투자 가능 사업 범위 확대, 3)비 금융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금융서비스 개발 시도 촉진, 4)핀테크 기업⁹ 등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의 수립, 5)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지급결제 서비스 이용 고객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등이 있다.

6 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2021.11.0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3137)」

7 금융위원회(2021), 「2021 금융위 업무계획 중 디지털금융 혁신 세부과제」

8 오픈뱅킹 서비스 등

9 해외 핀테크 기업을 포함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관련 주요 논의 사항

구분	내용
지급지시전달업 관련 법·규정 신설	지급지시전달업을 지급인의 자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지급인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 등에 지급지시를 전달함으로써 전자자금체 등을 돕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
전자금융업 규율 체계 개편 및 진입 규제 등의 합리화	현행 7개의 전자금융업 종류를 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 지급지시전달업으로 재분류하고 사업 주체가 직접 여신·수신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최소자본금 등에 대한 기준을 완화
간편송금서비스 및 전자화폐 등에 대한 규율 체계 정비	전자화폐 및 관련 업무를 폐지하는 대신 이용자의 자금을 보유하면서 간편송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 등
대금결제업자 등에 대한 후불결제업무 허용	대금결제업자 등이 후불결제업무를 겸영하고자 할 시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비정형·비금융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금융데이터 중심의 개인 신용 평가만으로는 특정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소외 계층을 포용
이용자 예탁금 보호	자금이체업자나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대금결제업자가 서비스 이용 고객으로부터 전자지급거래와 관련하여 받은 예탁금을 원칙적으로 전액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은행 등 관리 기관에 예치·신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도 관리
금융회사 등에 대한 비대면 거래 관련 책임 강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서비스 이용 고객의 거래 지시나 동의가 없었거나 거래 지시에 따라 처리되지 않은 비대면 거래 전반으로 확대 등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등 간 사적 협약으로 운영 중인 오픈뱅킹 서비스의 법적 근거 마련	전자지급거래청산 시스템을 운영하는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으로 하여금 그 전자지급거래청산시스템을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등의 사업자에게 개방 의무 부과 등
빅테크 기업 전자지급거래의 외부 청산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해 공신력 있는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을 통해 전자지급거래를 처리토록 하여 이용 고객별 환급되어야 할 예탁금 정보가 확정·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
국내외 빅테크 기업의 금융 산업 진출 관련 관리감독체계 마련	해외 빅테크 기업이 국내에서 전자금융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게 되면 국내에 법인, 지점, 영업소를 설치토록 하여 동 법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을 받도록 하고, 빅테크 기업이 합병, 분할, 해산, 전자금융업 전부의 양도 또는 양수 등을 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 등

※ 자료 : 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2021.11.0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3137)」

다. 가상자산

- 가상자산 생태계 확대, 하지만 영향력은 아직까지 제한적

(가상자산에 대한 상반된 예측) 2021년 11월, 전 세계 가상자산의 시가 총액 규모가 3조 USD를 넘어섰다.¹⁰ 이는 미국 포함 여섯 국가¹¹를 제외한 전 세계 다른 모든 국가 각각의 GDP¹²를 초과하는 수치이다. 이와 같은 가상자산의 거래 규모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이 갖고 있는 내재 가치에 대한 의문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Black Swan : the impact of the highly improbable」의 저자인

Nassim Taleb은 bitcoin의 가치가 '0'에 수렴하며, bitcoin이 통화로서 기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헷지(Hedge) 수단도 될 수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¹³

JP Morgan Chase의 CEO인 Jamie Dimon 또한 bitcoin은 어떠한 가치도 가지고 있지 않다(Worthless)는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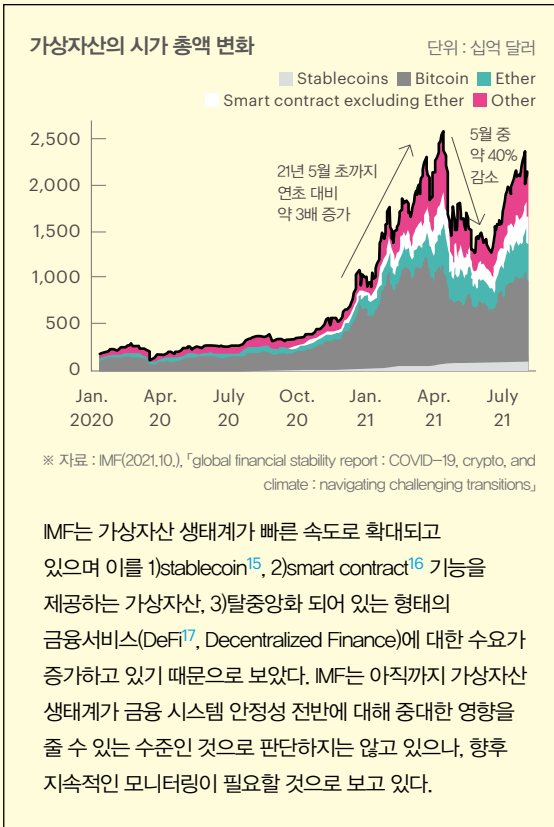
10 the Economic Times(2021.11.09.), 「crypto market m-cap hits \$3 trillion mark ; will the frenzy continue?」

11 독일, 영국, 인도, 일본, 중국

12 IMF(2021),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 April 2021」

13 CNBC(2021.07.13.), 「Black Swan author Nassim Taleb says bitcoin is worth zero and fails as a currency and a hedge」

14 CNN(2021.10.12.), 「Jamie Dimon bashes bitcoin again, calling it 'worthless」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지급결제시장에 편입시키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인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가상자산 생태계가 국내외 지급결제시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Mastercard와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Mastercard는 Bakkt¹⁹와 협업하여 향후 자사 네트워크를 통해 가상자산 지급 이용, 자사 카드로 대금 지급 시 가상자산 적립, 호텔 및 항공사가 운영하는 마일리지 포인트를 가상자산으로 전환, 물품 또는 서비스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Mastercard의 네트워크에 전 세계적으로 20,000 개 이상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도는 지급결제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자료: CNBC(2021.10.25.), 『Mastercard says any bank or merchant on its vast network can soon offer crypto services,』

2. 국내 지급결제시장 트렌드

소액결제 서비스 중심

가. 시장 전반

- 지난 5년간 국내 소액결제시장 규모는 두 배 가까이 증가
 비대면 방식 서비스가 성장의 동력,
 하지만 대면 방식 서비스 이용 규모는 매년 축소 중

(최근 5년간 147.4억 건 → 290.4억 건) 국내 소액결제 서비스²⁰ 제공 건수는 2016년 약 147.4억 건에서 2021년에는 이보다 약 143억 건 증가한 약 290.4억 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연평균

(가상자산 관련 비판과 생태계 확대) 이와 같이 가상자산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는 이유는 1)가격 변동성이 큰 점, 2)익명성 때문에 범죄 행위에 쉽게 이용될 수 있는 점, 3)현재까지 가상자산 거래소가 사이버 공격에 여러 차례 취약점을 드러낸 점, 4)CO(Initial Coin Offering)를 Ponzi Scheme¹⁸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던 점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과 별개로 가상자산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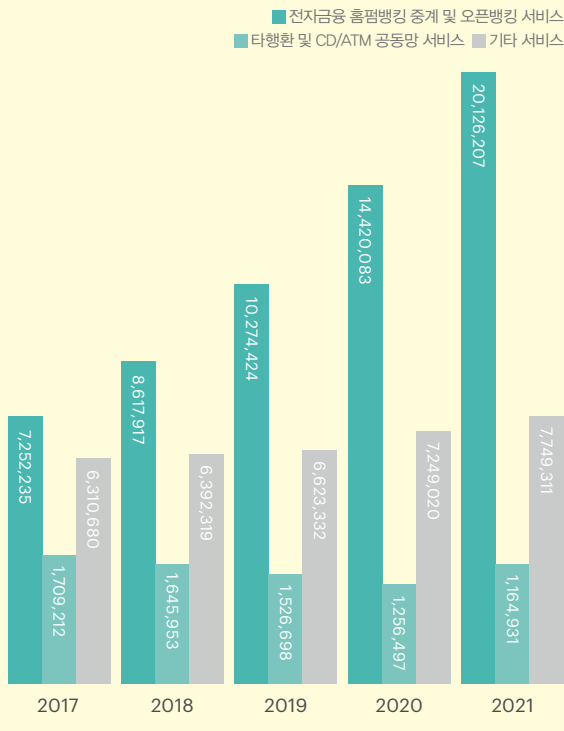
15 지급준비자산(Reserve Asset)을 바탕으로 그 가치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상자산의 한 종류이다.
 16 매수자와 매도자 간 합의된 조건에 따라 자기집행적(Self-Executing) 효력을 갖는 계약이다. 동 기능을 구현하는 대표적 가상자산으로 이더리움이 있다.
 17 DeFi의 예시로 P2P 금융, 토큰화된 형태의 파생상품 등이 있다.
 18 고수의 투자를 가장한 사기 수법의 한 종류이다. 이와 같은 사기 수법에서 내세워지는 투자 방식으로는 실질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기 어렵다. 때문에 어떤 투자자로부터 확보한 자금을 다른 투자자에게 배당금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구조적 한계로 인해 외부로부터의 꾸준한 자금 유입이 없는 경우 Ponzi Scheme은 지속될 수 없다.
 19 Intercontinental Exchange로부터 분사된 기업으로 가상자산 관련 솔루션을 제공한다.
 20 금융결제원이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효율적인 어음교환 제도 및 지로 제도를 확립하고 금융공통망을 구축하여 자금의 결제 및 정보의 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금융 거래 환경의 유지 및 발전과 금융회사 이용 고객 편의 향상 등 금융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성장률로 환산하면 약 14.5%이다. 비슷한 기간 동안 한국의 경제 규모가 연평균 약 2.16%씩 성장한 점²¹을 고려하면 국내 소액결제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비대면 방식 ↗, 대면 방식 ↘) 위와 같은 추세를 견인한 것은 비대면 방식²² 지급결제 서비스이다. 그중에서도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 전체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그 이용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전자금융 홈·편뱅킹중계 서비스가 주역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모든 소액결제 서비스의 이용 규모가 증가한 것은 아니다. 대면 방식 지급결제 서비스의 경우 그 이용 규모가 매해 감소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은행 창구에서 제공되는 타행한 공동망 서비스와 CD/ATM 공동망 서비스가 있다.

지급결제시장과 주요 서비스 별 제공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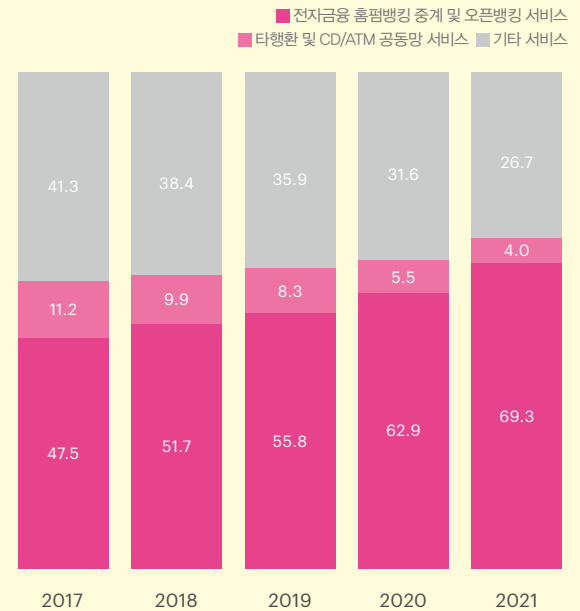
단위: 천 건



※ 자료: 금융결제원 사업계층별 분류체계 통계

지급결제시장과 주요 서비스 별 제공 건수 비중

단위: %



※ 자료: 금융결제원 사업계층별 분류체계 통계

나. 주요 비대면 방식 지급결제 서비스 현황

1) 오픈뱅킹 서비스

- 오픈뱅킹과 시장 참가 Player 다원화, 서비스 제공 주체의 배경 및 규모보다는 서비스 자체가 제공하는 편의성에 따라 시장이 재편될 것

최근 주목받고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²³는 핀테크 기업 등이 표준화되어 있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해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접근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1년간 25.4억 건 → 64.3억 건, 113.5조 원 → 314.3조 원) 오픈뱅킹 서비스 제공 건수는 2020년 약 25.4억 건에서 2021년에는 이보다 150% 이상 증가하여 약 64.3억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거래 금액은 2020년 약 113.5조 원에서 2021년에는 이보다 175% 이상 증가하여 약 314.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오픈뱅킹 서비스 개시 시점이 2년 전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치이다.

21 the World Bank에서 발표한 한국의 명목 GDP (2015년: 1,466조 USD → 2020년: 1,631조 USD)를 기준으로 계산된 값이다.

22 본고에서는 비대면 방식 지급결제 서비스를 고객이 본인이 소유한 수단(인터넷, 모바일 채널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정의하였다. 한편 대면 방식 지급결제 서비스의 경우 고객이 특정 장소(은행 창구, ATM 등)를 물리적으로 방문하여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정의하였다.

23 2019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오픈뱅킹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다.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의 경쟁 심화) 이미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다수 채널에서 대고객 접점을 확보한 핀테크 기업들은 오픈뱅킹 환경에 참여하여 기존 서비스와 금융서비스를 결합시킴으로써 자체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회사도 핀테크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보다 편리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시도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데 힘쓰고 있다.

(서비스 자체의 편의성이 향후 성패를 좌우) 일반 고객은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차이를 구별하기 어렵다. 하지만, 어떤 서비스가 더 편리하고 신속한지는 쉽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앞으로는 금융서비스 제공 주체의 배경이나 규모보다는 서비스 자체가 제공하는 편의성에 따라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전자금융 홈·핀뱅킹중계서비스

- COVID-19에 따른 비대면 방식 생활습관 확산, 국내 증권시장 내 IPO 등에 따른 자금 이동 규모 확대로 서비스 이용량 증가 추세가 강화됨

전자금융 홈·핀뱅킹중계서비스는 고객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등의 채널을 통해 타행으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며, 오랜 기간 서비스 제공 건수나 거래 금액 모든 부분에서 비대면 방식 전자거래 서비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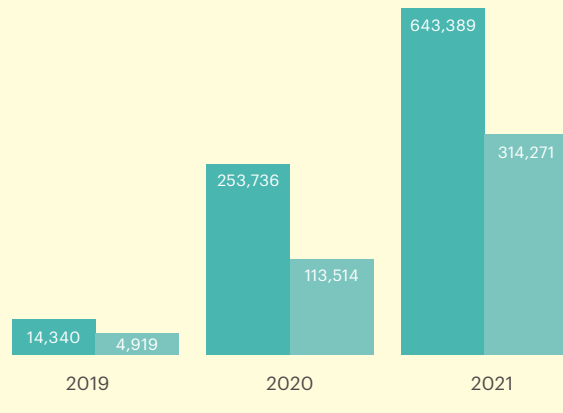
(최근 5년간 64.2억 건 → 137.9억 건, 1.67경 원 → 2.59경 원) 전자금융 홈·핀뱅킹중계서비스 제공 건수는 2016년 약 64.2억 건에서 2021년에는 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여 약 137.9억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거래 금액은 2016년 약 1.67경 원에서 2021년에는 이보다 50% 이상 증가하여 약 2.59경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감염병 확산 및 국내 증권시장 내 잇따른 IPO 등이 증가폭 확대) 인터넷 서비스 이용률 증가 및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전자금융 홈·핀뱅킹중계서비스 이용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COVID-19이 확산됨에 따라 그 증가 폭이 확대되었다. 구체적으로, 2019년의 전년 대비 서비스 이용 건수 증가율이 약 5.8%이었으나 2020년에는 약 19.4%로 세 배 이상 확대되었다. 이에는 감염병으로 인한 비대면 방식 생활습관 확산 및 최근 국내 증권 시장에서 잇따른 IPO(Initial Public Offering) 등의 이벤트로 인한 자금 이동 규모 증대와 같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픈뱅킹 서비스 제공 건수 및 거래 금액

단위 : 오픈뱅킹 건수 = 만 건, 거래 금액 = 십억 원

■ 오픈뱅킹 서비스 제공 건수 ■ 오픈뱅킹 서비스 거래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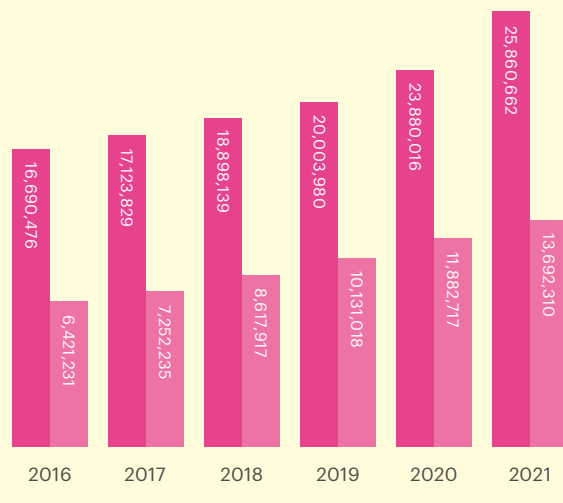


※ 자료 : 금융결제원 사업계층별 분류체계 통계

전자금융 홈·핀뱅킹중계서비스 제공 건수 및 거래 금액

단위 : 전자금융 건수 = 천 건, 거래 금액 = 십억 원

■ 전자금융 홈·핀뱅킹중계서비스 거래 금액 ■ 전자금융 홈·핀뱅킹중계서비스 제공 건수



※ 자료 : 금융결제원 사업계층별 분류체계 통계

다. 주요 대면 방식 지급결제 서비스 현황

1) CD/ATM 공동망 서비스

- 비대면 채널 선호로 인한 서비스 이용 건수 감소 및 은행의 ATM 운영 부담 증대

CD/ATM 공동망 서비스는 고객이 CD(Cash Dispenser)나 ATM을 통해 현금 인출·입금, 계좌이체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최근 5년간 16억 건 → 10억 건, ATM 45,070 대 → 32,927 대) CD/ATM 공동망 서비스 제공 건수는 2016년

약 16억 건에서 40% 가까이 감소하여 2021년에는 10억 건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국내 ATM 수²⁴는 45,070대에서 32,927대로 30% 가까이 감소하였는데, ATM 운영비 대비 수수료 수입 감소로 인해 이와 같은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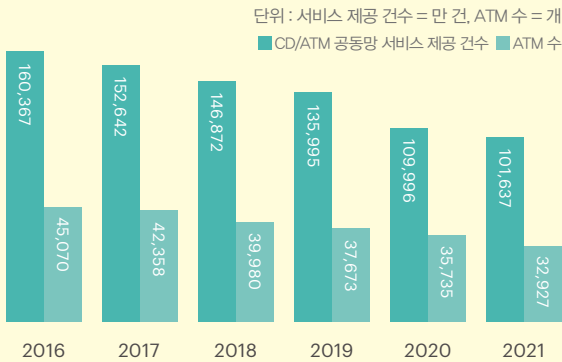
2) 타행환 공동망 서비스

- 비대면 채널을 통한 소액 금융 거래 증가로 서비스 이용 건수 감소, 하지만 총 거래 금액은 증가 / 거액 금융 거래는 여전히 은행 창구에서의 대면 업무 처리 방식을 선호

타행환 공동망 서비스는 고객이 금융회사 영업 창구에 방문하여 계좌 이체 및 수취인 조회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최근 5년간 1.9억 건 → 1.5억 건, 1,184조 원 → 1,319조 원) 타행환 공동망 서비스 제공 건수는 2016년 약 1.9억 건에서 2021년에는 약 1.5억 건으로 25%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은행 지점수²⁵는 6,109개에서 5,391개로 10% 넘게 감소하였는데, 영업 창구 방문 고객수 감소로 이와 같은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타행환 공동망 서비스 거래 금액은 2016년 약 1,184조 원에서 2021년에는 이보다 10% 이상 증가하여 약 1,31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고객 입장에서 거액 금융 거래의 경우 여전히 은행 창구에서 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CD/ATM 및 타행환 공동망 서비스 관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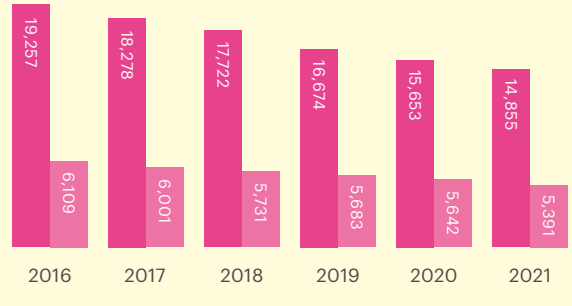


※ 자료: 금융결제원 사업계층별 분류체계 통계,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24 매년 6월 말 기준
25 매년 3월 말 기준

CD/ATM 및 타행환 공동망 서비스 관련 현황

단위: 서비스 제공 건수 = 만 건, 은행 지점 수 = 개



※ 자료: 금융결제원 사업계층별 분류체계 통계,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라. 시사점

- 핀테크 기업의 약진과 금융회사의 대응, 비대면 거래 방식은 이미 대세

최근 수년 동안 주요 핀테크 기업은 국내 지급결제시장에서 단순히 일부 한정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은행업 면허 취득, 오픈뱅킹 환경 참가 등의 방법으로 시장 내 주요 Player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또, 금융회사도 자체 애플리케이션 UI(User Interface) 개선 및 유망 핀테크 기업 인수 등을 통해 서비스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거의 대부분의 금융 거래가 비대면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현실은 당연한 것이다.

참고 자료

- 금융위원회(2021), 「이제 금융소비자는 카드사 앱에서 은행 계좌 정보를, 은행 앱에서 카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2021), 「2021 금융위 업무계획 중 디지털금융 혁신 세부계획」
- 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2021.11.0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3137)」
- 매일경제(2021.11.03), 「금융위원장 "보험사 오픈뱅킹 참여허용, 1사1면허제 완화"」
- 금융결제원 사업계층별 분류체계 통계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CNBC(2021.10.25), 「Mastercard says any bank or merchant on its vast network can soon offer crypto services」
- CNBC(2021.07.13), 「Black Swan author Nassim Taleb says bitcoin is worth zero and fails as a currency and a hedge」
- CNN(2021.10.12), 「Jamie Dimon bashes bitcoin again, calling it 'worthless'」
- the Economic Times(2021.11.09), 「crypto market m-cap hits \$3 trillion mark; will the frenzy continue?」
- IMF(2021.10),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COVID-19, crypto, and climate: navigating challenging transitions」
- IMF(2021),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21」
-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CD?end=2020&start=1960&view=map&year=2020>
- <https://www.openbanking.org.uk/api-performance/>